

선거명	군포시장선거	선거구명			군포시
후보자명	한 대 희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우선순위 1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목표

- 산본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 원도심 재개발·산본권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조합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설치

이행방법

1. ‘1기신도시 활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 ▶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및 국비지원 사항을 정리하고 합의과정 진행
- ▶ 신도시활성화 특별법 당론채택과 국회 처리 진행

2.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지원체계 마련

- ① 정비기금 조성해 안전진단, 컨설팅, 정비기반시설 등을 지원
- ② 철거민들의 안정적 일시거주를 지원하는 이주자전용단지 조성
- ③ 재건축리모델링센터, 사전타당성검토 협의회를 통한 민과 관의 사전협의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
- ④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의무화에 따른 관련 컨설팅과 시공에 공공이 참여 (조합원 부담 최소화)

이행기간

주요사업	이행기간(추진절차 등)
특별법 제정	22년7월 부터 국회 후반기 원구성시 부터 국회와 협의 시작
지원체계 구축	22년 중 관련 조례 제정(정비기금 조성, 센터 설치 등)
	23년 부터 신규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한 이주자전용단지 조성계획 추진
	23년 탄소중립센터·도시공사 등이 제로에너지 건축 참여 및 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

재원조달방안 등

- (정비기금) 개발부담금·공공기여금 활용 + 시 출연금
- (이주자전용단지) 공공택지조성원가에 반영 + 정비기금
-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시공비선투자(시공법인) 후 에너지절감분으로 회수

선거명	군포시장선거	선거구명			군포시
후보자명	한 대 희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우선순위	2 군포의 신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금정역세권				

목표

- GTX시대를 맞아 금정역세권 일원이 군포의 중심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및 도시환경을 정비
- 편리한 교통여건을 반영해 동측 공업지역과 서측 주거지역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일자리와 주거·상업기능이 완비된 신도시로 개발

이행방법

1. 재개발, 고밀도 복합개발로 주거환경 개선
 - ① 금정역 주변 재개발로 주거환경 개선
 - ② 금정역 상업지역 고밀도복합개발로 도시기능 확충
2. 금정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개선
 - ① GTX 개통에 맞추어 금정역사 환경개선과 환승편의 개선
 - ② 경부선철로 지하화 추진과 사업비 조달방안 마련
 - ③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이착륙장) 건설 추진(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반영)
3. 자연을 통해 휴식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GREEN 금정
 - ① 산본천 1단계 구간 복원으로 친수공간 확보
 - ② 경부선철로 지상부지에 숲과 산책로 조성
 - ③ 안양천(공업지역 구간) 명소화사업으로 수질환경 개선 및 공원 조성

이행기간

주요사업	이행기간(추진절차 등)
금정역세권 개발	22년 현재 추진 중, 고밀도복합개발은 23년 부터 연구용역 및 법정 계획 수립 추진
교통망 개선	(금정역사) 22년부터 통합역사 및 지하환승센터 타당성조사 실시 후, 26년 GTX 개통 이전 조성완료
	(경부선 지하화) 22년부터 경부선철로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사업비 조달방안과 지상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 추진. 26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
산본천 복원	22년부터 2030 공업지역정비 기본계획에 UAM 버티포트 계획 반영, 이후 국토부 대상부지 선정사업에 참여
	24년 1단계(한일공원사거리~금정역 앞)구간 공사 착공, 인근 재개발 사업과 병행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 민간투자 + 개발이익 공공기여 + 시비

※ 당정역~명학역 구간 지하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2천억~3조3천억 규모로 추정. 사업비를 재정으로 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포시는 적극적으로 공업지역 복합개발과 연계한 부대 사업을 개발하고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것임

선거명	군포시장선거	선거구명			군포시
후보자명	한 대 희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우선순위 3	공업지역 재정비와 신산업 혁신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목표

- 당정동 공업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진행되어 공업지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통합적 도시관리방안 마련과 민간 개발동력 창출을 위한 공업지역 재정비계획 수립해 일자리 20,000개 이상 창출
- 산업혁신구역, 융복합기능이 집적된 거점지역을 조성해 신산업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성장을 지원해 공업지역을 수도권남부신산업벨트의 허브로 육성

이행방법

1. 2030 군포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공업지역 전체 약 69만평)
2. 유한양행 중심의 바이오 융복합 R&D 허브 조성(시범사업)
 - ▶ 유한양행바이오연구소와 CMC센터(50개 관련기업) 입주
 - ▶ 주거, 산업, 업무, 상업, 문화가 결합된 복합단지 조성
3. 잔여 공업지역(63만평)에 신산업분야 집적단지 추가 조성(3개소)
 - ▶ 바이오·모바일·UAM·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 기업 입주공간 제공
 - ▶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로 조성
 - ▶ 기업지원 시설·공원·노동자 의료·복지 공간 등 인프라 확충
4. 청년창업 모태펀드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
 - ▶ 창업초기 기업·혁신성장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창업 및 성장비용 지원
5. 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이착륙장) 건립

이행기간

주요사업	이행기간(추진절차 등)
기본계획 수립	(현재 계획수립 중) 22년 11월 기본계획 고시
융복합 R&D허브	(22. ~ 23.) 민자사업자 선정 및 착공
	(23. ~ 27.) 유한양행 바이오연구소 입주, CMC센터 입주
집적단지 추가조성	(23. ~ 26.) 정비구역 세부 계획 수립 및 특화기업 유치
청년창업 모태펀드	(22. ~ 24.) 펀드조성계획 수립, 중기부 공모사업 참여, 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및 조합결성 등 절차 이행
UAM 버티포트	22년 부터 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25년 국토부 대상지 공모사업에 참여

재원조달방안 등

- 허브 및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전액 민자, 공공기여를 통해 창업공간과 공공시설 확충
- 모태펀드는 국비와 시비 민간투자로 조성(200억 목표)

선거명	군포시장선거	선거구명			군포시
후보자명	한 대 희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우선순위	4 국도 47호선 상습교통 정체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				

목표

- 국도 47호선 구간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장래 3기신도시 조성으로 더욱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안해 국도 47호선 입체화 및 우회도로 건설 추진
- 기존 철도망이 남북 간 일방 축임. 이로 인해 철도를 통한 동서방향 이동이 불편. 이에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노선을 개발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이행방법

1. 국도 47호선 지하화로 상습 교통정체 해소
 - ▶ 금정동(북측) ~ 대야미동(안산시계) 7km 구간에 지하차도 조성
 - ▶ 친환경 모빌리티·자율주행 등 미래수요를 반영한 도로 조성
2. 국도 47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해 보건소사거리 일대 교통정체 해소
 - ▶ 부곡동 ~ 산본 IC간 우회도로 신설
3. 신규 수도권 서남부도시 간 동서 철도망 구축
 - ▶ 군포시 신규 철도망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 ▶ 신안산선, 인동선, 위과선, 서해안선 등과 연결되는 동서간 최적 노선 개발
 - ▶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이행기간

주요사업	이행기간(추진절차 등)
국도 47호선 입체화	(22. ~ 30.) 3기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 진행
국도 47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	
동서간 철도망 구축	(22. ~ 23.) 군포시 신규 철도망구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24. ~ 25.)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순위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서남부 도시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대정부 협상 진행

재원조달방안 등

- 도로는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되,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은 협의 과정을 통해 확정
- 철도망 구축 타당성조사사업비는 22년도 예산에 기반영. 철도망구축 사업비 총액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정 가능

선거명	군포시장선거	선거구명			군포시
후보자명	한 대 희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우선순위	5 남군포 일원의 성장을 통한 군포 SCALE UP				

목표

- 3기 신도시를 좋은 일자리와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경제도시로 조성
- 인접지역인 대야동과 송부동 권역에 성장동력을 확충해 남군포 일원을 군포의 미래 거점 도심으로 육성

이행방법

1. 3기 신도시에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 조성
 - ▶ 3기 신도시 사업구역에 도시형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 부지 확보
2. 대형종합병원과 연구시설(대학원 등) 유치
 - ▶ 3기 신도시 부지조성 계획에 대형 의료시설 용지 조성
 - ▶ 상급병원(500병상 이상) 수준의 대학병원 유치
 - ▶ 바이오혁신클러스터와 연계, 시민체감형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신약개발 임상실험 등)
3. 대야미역세권 중심 신규 개발사업 추진
 - ▶ 대야미역사 확장 및 환승주차장 건립
 - ▶ 유희부지를 활용한 자족시설과 공동주택 건설(약 9만평)
4. 부곡동 복합물류단지 이전·서서울변전소 옥내화·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이행기간

주요사업	이행기간(추진절차 등)
첨단산업단지 용지확보	(22. ~ 23.) 국토부·LH와 협의 중, 이후 단지조성계획에 반영
대형종합병원 유치	(22. ~ 23.)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시 종합의료시설용지로 반영 토록 국토부 및 LH 협의, (23. ~ 24.) 지구계획 수립에 반영 (현재) 대학에 투자의향 파악 및 협의 등 유치활동 진행 중
대야미역세권 개발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
변전소 옥내화 등	(현재 ~ 30.) 3기신도시 조성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
복합물류단지 이전 추진	(22.~28.) 해당부지 개발계획 수립 후 복합물류터미널 1단계 사업 종료시점(28년) 까지 이전 및 활용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절차 진행

재원조달방안 등

- 3기신도시 조성에 반영하는 사업은 시비부담 없이 추진
- 대야미역세권 개발은 민자 + 도시공사